영 김 의원 "탈북 가족 한국 송환 관심 가져달라"

▲ 청와대를 방문한 영 김 의원이 중국에 구금 중인 탈북 가족의 한국 송환을 촉구했다(왼쪽). 영 김 의원이 드롭박스를 둘러보고 성금을 전달했다(오른쪽). 사진=청와대, 영 김 연방하원의원

영 김 연방하원의원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국에 구금돼 있는 기독교인 탈북 가족에 대한 관심을 요청했다.

지난 9일(한국시간) 미 의회 코리아스터디그룹(CSGK) 대표단과 함께 청와대를 방문한 영 김 의원(CSGK 공동의장)은 "문 대통령께서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 종료 후에 이어졌던 성명에서 북한 인권 상황의 진전을 강조했고 그 중요성에 대해서 발언한 것이 기억난다." 며 "지금 중국에는 두 크리스천 탈북 가족이 있는데 그 가족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을 드린다." 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한국 정부가 중국 정부 측에 접촉을 해서 이 가족들이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도와주길 희망한다." 며 "현재 북한은 코로나 봉쇄조치로 폐쇄가 되어 있지만 북한이 다시 문을 연다면 이 가족들이 북송이 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어떠한 불행한 일이 일어날지는 너무나도 자명하다고 생각을 한다." 고 말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에는 현재 약 3만4,000여 명의 탈북민이 있으며, 정부는 탈북민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도록 지원해오고 있다." 고 답했다.

문 대통령은 또 "한국과 미국은 지난 한미 정상회담을 계기로 더욱 포괄적이고 호혜적인 전략 동맹으로 새로운 협력의 장을 열어가고 있다." 며 "한미관계 발전을 든든히 후원해 준 미 의회 역할에 깊이 감사드리며, 한미동맹이 가장 모범적인 동맹으로 발전하고, 또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당부드린다." 고 요청했다.

한편 김 의원은 11일, 미국으로 출국하기 앞서 이날 오전 서울 금천구에 있는 주사랑공동체교회(담임목사 이종락)를 방문해 이 교회에 설치된 드롭박스(베이비박스)를 둘러보고 성금을 전달했다.

드롭박스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산모가 작은 철제 상자 안에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2009년 12월 주사랑공동체교회의 담벼락에 최초로 설치됐다.

법인설립과 절세를
도와드립니다

전 대기업 CFO
오랜실무경험
공인회계사
오 승 윤
Income Tax Return
Corporation Set-up & Dissolution
Tax Planning Service
Tax Audit Representation
Payroll Services
Sales Tax Return
사업체 분석
Accounting System 상담
Member of C.S.
E-2 관련 회사 설립 및 상담 (BUSINESS PLANNING)
efile 빠른 환불
714.522.1120
6281 Beach Blvd. #101 Buena Park, CA 90621
(Beach + Commonwealth) / 유니티 은행 뒤
Michael S.OH CPA

CA주, '태권도의 날' 제정 … 9월 4일

캘리포니아주 상원이 15일 '태권도의날' 결의안(ACR1)을 통과시켰다.

이 결의안은 주하원 예술·엔터테인먼트·스포츠·관광·인터넷 상임위원장인 섀런 쿼크-실바 의원과 한국계인 최석호 의원이 공동 발의했으며 지난달 주하원을 통과한 바 있다.

이 결의안은 '태권도의 날' 인 9월 4일을 캘리포니아주 '태권도의 날' 로 공식 지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한국의 오랜 문화와 전통이 깃든 태권도는 세계에서 가장 널리 알려진 무술이며 많은 사람이 태권도를 통해 심신을 단련하고 예의와 존경, 절제를 배우고 있다고 명시했다.

결의안 통과에 따라 캘리포니아주는 매년 9월 4일을 '태권도의 날' 로 기념하게 된다.

한편 '태권도의 날' 은 2006년 세계태권도연맹 정기총회에서 지정됐다.

세계태권도연맹은 1994년 9월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103차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총회에서 태권도가 올림픽 정식종목으로 채택된 것을 기념하고 태권도에 대한 관심 제고와 태권도 보급을 도모하기 위해 이날을 '태권도의 날' 로 지정했다.

CA주의회, '기본소득 보장 플랜' 가결

예비 산모·위탁가정 청년 대상

캘리포니아주가 전국 최초로 기본소득 프로그램이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캘리포니아 의회는 15일 매달 3천 5백만 달러가 투입되는 '기본소득 보장 플랜 (guaranteed income plan)' 법안을 가결했다.

이 법안은 양육권을 가진 예비 산모(싱글맘)과 위탁 가정을 떠난 청년들에게 매달 500~1,000달러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데이브 콜테즈 민주당 상원의원은 "예비 싱글맘과 위탁 가정 청년의 고등학교 졸업율은 현저히 낮다며 그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스캇 윌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어려움에 처한 젊은이 구제를 위해 모든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하지만 기본 소득 보장 플랜은 일할 동기를 낮추고 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현금 지원이 아닌 직업 교육 등을 통해 궁극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이다.

'기본소득 보장 플랜' 은 개빈 뉴섬 CA 주지사의 최종 서명을 남겨두고 있다.

Implant ~~$1,700~~ $1,200
FREE Consultation
Exam X-ray Cleaning $35
Crown $500
잇몸치료 ~~$600~~ $400
틀니 $1,500

각종 보험
메디케어(PPO) 환영
KMC Dental Group
밝은 미소, 건강한 치아
Irvine
Tel. (949) 253-8300
2700 Alton Parkway #225
Irvine, CA 92606
L.A.
Tel. (323) 660-2005
3755 W. Beverly Blvd. #200
Los Angeles, CA 90004
Hacienda Heights
Tel. (626) 333-3000
16388 Colima Rd. #201
Hacienda Heights, CA 91745